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2년도 암울한 가운데 시작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서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린도전서 15장 5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6호 2012년 1월 2일 (월)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시



부흥의 황금빛 미래로 가는 꿈의 길목이어

소강석 목사 / 시인, 새에덴교회

붉은 태양이 솟구치는 바다의 검푸른 수평선
 태고의 신비로운 동산을 적시던 장강의 물결을 비추던
 심원의 빛이 생명나무 꽃향기처럼 번져가는 새해의 일출

지난 밤 폐선(廢船)의 절망과 잿빛 파도의 저항은
 거대한 시간의 수레바퀴를 막아서며 멈추려 해도
 어둠에 잠긴 저 태양의 수면 위에 빛의 가루를 뿌리며
 다시 숨 막힐 듯 장엄한 몸짓으로 솟아오르는
 2012년의 새 날,
 그 황홀한 태양의 눈동자를 잠들게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블랙홀 속에서 도탄에 빠진 꿈과 희망
 길을 잃고 방황하다 길 위에 쓰러진 청춘의 별들
 절망의 강가에서 목 놓아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신음소리들
 그러나 비상구마저 없는 막다른 골목길 끝에
 밤하늘 암흑의 먹구름 사이로 별들은 종종히 빛나고 있나니

이제 2012년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지난해의 혼란과 공허, 절망과 비탄의 노래를 그치고
 다시 하늘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아직 어둠에 잠긴 산을 넘고 협곡을 지나
 새벽 하얀 서리 내려앉는 강물 소리를 따라
 가슴 시린 희망의 행진을 시작해야 하리라

어두울수록 별은 빛이 나고
 절벽 끝에 피어난 꽃은 잔인할 정도로 그윽한 향기를 발하느니
 거친 광야의 절망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낸
 우리의 새해는 더욱 더 눈부신 꿈으로 빛이 나라라

이제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희망의 등대요
 사랑의 소통과 융합을 주도해 온 미주크리스천신문이어
 일백 수십만의 무궁화 꽃들과

4천여 몸 된 교회 포도송이 알알이 맺히며 향기를 발하는
 하얀 포도원의 들녘과 언덕 위를 지나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저 새해의 지평선 위에
 초록빛 희망의 대서사시(敍事詩)를 기록하소서

진리의 표지요, 복음의 햇불로 타오르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그 사랑과 희망의 아리아여
 새벽이슬에 젖은 돌맹이의 침묵을 깨어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는 들꽃의 향기로운 심포니여
 2012년,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미국사회의 주류 중의 주류 세계로 더 솟구치며 웅비하도록
 그 어떤 풍랑에도 파선되지 않는
 거대한 함선의 불굴의 동력이 되어 주소서

아, 절망과 시련의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밝아오는
 2012년 새해의 아침, 그 황홀한 희망의 향하여
 거친 황무지에서 라일락꽃을 피우는
 잔인한 생명과 사랑의 팡파르여
 부흥의 황금빛 미래로 가는 꿈의 길목이어
 다시 어둠의 벽을 뚫고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이어
 절망을 딛고 세계 위로 비상하고 웅비할
 무지갯빛 높고 푸른 꿈의 나라여.

● 신년 칼럼

승리의 삶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는 모두 승리감에 불타서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퇴장할 때에는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승리한 팀은 기쁨이 넘치는 늑름한 모습이지만 패한 팀은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퇴장하는 것이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생 드라마의 원작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각본에 의하여 전개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실 때 낫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마굿간에서 탄생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인생드라마의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제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좇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인생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신년설교 권태진 목사



2면 2012년 세계 전망 "암울한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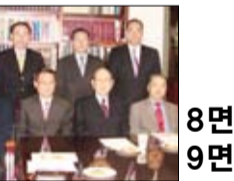
3면 2012년 신년메시지



4면 4면 신년좌담(LA)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5면 5면 신년좌담(NY)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6면 6면 신년좌담(LA)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7면 7면 신년좌담(NY)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8면 8면 "새 술은 새 부대에" 2012년 맞는 교회의 응전 기대!

www.kapcq.org

2012년 제직원 수련회

주후 2012년 1월 12일(목) - 1월 15일(주일)

강사



김홍도 목사 * 금란교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저녁집회 매일저녁 오후 8시(목-토)
 새벽집회 13일(금), 14일(토) 오전 6시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집회도 있습니다.(금-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4시)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담임목사 장영춘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Los Angeles

특별좌담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일 시: 12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참석자: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중부제일연합감리교회)
민경엽 목사(OC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 나침판교회)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뽀얏장로교회)
송규식 목사(차세대 연구소소장 대표)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미주평안교회)
이정현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나성서부교회)
(가나다순)
사 회: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리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교회의 거품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교회들도 그렇구요. 올해 어려움을 통해 이 거품이 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무모한 일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행했던 일들이 이번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며 그런 면에서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되었지요. 부흥이란 것은 지금까지 수평이동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서 새신자(불신자 전도)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 되어 하나님에 기뻐하는 새신자 수는 늘지 않고 수평적 이동뿐이었지요.

린만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세운 교회와 선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해 지기도 합니다.
변: 한국 목사님들의 생각구조가 잘못돼서 그렇지요(웃음). 생산성이 없는 아이들은 숫자에 낄지 않는다.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되었지요. 부흥이란 것은 지금까지 수평이동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서 새신자(불신자 전도)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 되어 하나님에 기뻐하는 새신자 수는 늘지 않고 수평적 이동뿐이었지요.

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이동하면서 교과 개념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서 어떤 이는 천주교, 불교로 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의 분석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갖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생활이 되고 기독교가 돼야 합니다.

장: 가치관의 문제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문제 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어야 성공하고 축복 받음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학교가 성공 축복인줄 압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고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영아부 어린이가 1년에 70-80명 세례를 받지요. 교육담당자들이 가치관을 바로 심어 주고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간다고 행복한 것 아닌데 그것을 깨우쳐주지 못하니... 공부하라고 뒤달하고 점수 잘 맞아야 칭찬하고 선물사주지 교회 가는 것에는 관심 없지요. 학원가는 것만 관심이 있고 신앙교육이 방치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뒤엎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들이 새바람 일으켜야 합니다.

장: 올 한해를 지나며 느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은 남가주교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기관 대표들께서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한

한 해가 저물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이 시기다. 본지도 신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남가주 교계 단체장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쁜 단체장들이었지만 지난 2011년을 진단하며 2012년 새해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해 마음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좌담 말미에 본 지에 대한 관심과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본지가 "알차고 복음적이며 성도들이 봐도 유쾌한 것이 없는 균형 잡힌 신문"이라고 표현했으며 일반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고 번역기사로 미국교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기획기사 통해 안목 넓힐 수 있어 좋으며 "문제점 공격보다 좋은 이야기가 강조되는 신문, 긍정적 요소를 강조해서 부정적 면을 지향하는 신문"이 돼주기를 바란다는 견해도 있었다.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른 신학을 세우고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편집자주]

장영춘 목사(장):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쁘신 단체장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해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2011년 남가주 교계를 돌아보시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는 내리지만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며 기도만이 미국이 살고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가 살길임을 경험했습니다.

데 7000여 표 부족으로 부결된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교계가 단합이 되고 기도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계가 이럴 때 더욱 단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로즈볼 기도회(11/11/11 기도회)를 미기종에서 준비하며 '위 기 속에 기도하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연합기도회를 해도 3000명이 모이기 힘들데 12,000명이 모인 것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정현 목사(이): 3년 전부터 불황이 닥쳤는데 미국 경제적 불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배교현상으로 종말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불황은 교회도 영향을 받아 침일조 40-50%로 저조해졌지요. 사회경제도 어렵지만 교회도 어려워 부흥은 고사하고 생존에 연연하는 상황이었지요. 수정교회와 같은 큰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 목회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 그렇지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들 깨닫게 되지요.

김영대 목사(김): 2011년에 특별히 느낀 것은 모두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특히 청소년사역에 대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나합니다. 큰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점점 연장자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교회마다 30%, 많게는 50%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2011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엽 목사(민):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위기적 상황이 올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11/11/11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특히 다른 민족을 초청해 기도회 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울면서 회개

송규식 목사(송규): 금년 한해도 현안문제인 장년목회 문제를 안고 있어 거기에 신경쓰다보니 다음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도회나 중요 모임을 볼 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니다. 장년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고 항상 다음세대가 제외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든 다음세대를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영익 목사(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 우

장: 좋은 말씀입니다. 교협이나 목사회는 개교회가 못하는 프로그램



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년 전 한국에 갔을 때 금란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저자 손보현 목사) 책을 몇 권 주시면서 이번 초청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후에 새에덴교회에 갔더니 그 책을 또 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200명에서 수 천명의 교회로 부흥시켰지요. 미주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전도에도 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의 참 맛을 보여주지 못하



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겠고 한국의 대선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면에도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흡스쿨링과 각 교회가 가톨릭처럼 기독교 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단도 성황하기 좋은 곳이 미주지역입니다. 이단문제, 베리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선을 그어주어야겠고. 개교회에서는 부흥이란 수적 성장보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cludes text: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2012년 불학기 학생모집', '기독교문학사(B.A.C.S.) - Undergraduate Program', '기독교학 석사(M.A.C.S.) - Graduate Program', '목회학 석사(M.Div.) - Graduate Program', '유치원 원장, 교사 자격 프로그램 Preschool Director & Teacher Certificate Program'. Also includes address: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and contact info.

Los Angeles

특별좌담



송정명 목사

루에 20분은 기도하고 하루에 2번... 송정명 목사는...

또한 SB48법안 통과를 저지를 위... 송정명 목사는...

민: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송정명 목사는...

송규: 유럽의 기독교가 쇠락하고... 송정명 목사는...

변: 남가주의 한인교회가 1,350에... 송정명 목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송정명 목사는...

변: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 송정명 목사는...



변영익 목사

관객이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송정명 목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 송정명 목사는...

장: 새바람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송정명 목사는...

변: 2012년 소망하는 것은 남가주... 송정명 목사는...

김: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신임을... 송정명 목사는...

송정: 같이 힘을 합쳐 하나가 되... 송정명 목사는...

송규: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송정명 목사는...

민: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정치도... 송정명 목사는...

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송정명 목사는...

이: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 송정명 목사는...

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 송정명 목사는...

(정리: 이성자 기자)

합니다. 교회가 맘대로 뛰어놀게... 송정명 목사는...

민: 최근에 기사를 보니 한국의... 송정명 목사는...



민경엽 목사

성장했는데 기독교는 1.6% 밖에... 송정명 목사는...

OC(옐렌저카운티)협의회 임원들... 송정명 목사는...

SB48저지, 이단, 베리칩 등 교계 한 목소리로 세력 강화 목회자 신뢰회복, 강단에서 회복되는 복음의 본질로 회귀

서 싸우고 갈라서는 모습으로 매력... 송정명 목사는...

장: 기독교가 하락한 것은 성직자... 송정명 목사는...

송정: 2012년은 미국, 한국, 북한... 송정명 목사는...

1,500여개라고 알고 있는데 교협... 송정명 목사는...

장: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 송정명 목사는...

이: 큰 주제인데 정말 논쟁 현상이... 송정명 목사는...

(6면에서 계속) 장: 이런 글들을 수시로 써서... 송정명 목사는...

김: 앞서 노인 연장자 문제가 언... 송정명 목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문화 다... 송정명 목사는...

장: 제일 고민되는 것이 차세대... 송정명 목사는...

나는 처음 이민목회를 하면서 사... 송정명 목사는...

송규: 지금 사실은 차세대 중에... 송정명 목사는...



송규 목사

회들이 시설은 많은데 이것을 이용... 송정명 목사는...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degree programs,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담임목사청빙 (Pastor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Grace & Peace Church.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은혜와 평강교회 THE GRACE & PEACE CHURCH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권마태 한국어



소문 들으셨지요!



지금 한글 ㄱ ㄴ 도 몰라도 학생 혼자 스스로 “권마태 한국어” 교과서 DVD로 공부하면 신기하게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안에 우리 어른들처럼 못읽는 한글이 없게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저자 권마태 목사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 채택 기념!
2세대들 선물용! 상고 대 방출!**

한글을 배울 때 쓰지 않고 브레인 (뇌) 에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첨단시대의 교육방식으로 미국정부 교육국에서 검증 공립학교 교과서로 채택한 “권마태 한국어” 동포 2세 들을 위하여 연말 선물 대 할인 판매를 단행합니다. 1인당 5 Set 로 제한함을 양해하여 주세요!



권마태 한국어 교과서 3권 DVD 6장

정가 \$539.00 > 특별할인 \$199.99 (1인당 5 Set 제한)

학부모님들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며, 학생 혼자 스스로 컴퓨터나 DVD Player 로 보면서 절대로 쓰지않고 DVD 따라하기 10 시간만 공부하면 저절로 한글의 원리를 알게되어 지금 한글 ㄱ ㄴ 도 모르는 학생도 10시간 만에 기적처럼 신문도 동화책도 즐즐 읽을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213) 234-5577



KWONMATAE FOUNDATION • KWONMATAE CORPORATION • KWONMATAE KOREAN SCHOOL
E-Mail : kmatae@gmail.com www.kwonmatae.com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주강사



김응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장영준 목사
 • 분지 발행인

※ 강사는 추후 발표합니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시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전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 (Senior 1,130불)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